

낯선 땅 말레이시아에서 경험한 나의 첫 번째 사회생활

말레이시아 인턴십 프로그램 후기

이가은 영어영문학과 11학번

우리대학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가운데 올해부터 신규 운영되고 있는 말레이시아 인턴십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자매대학에서 2주간의 사전 기초교육을 마치고, 곧바로 말레이시아의 10대 기업으로 손꼽히는 베자야(Berjaya) 그룹 계열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프로그램이다. 총 16주에 걸쳐 진행되는 말레이시아 인턴십은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세계로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최고의 기업에서 프로젝트 팀의 일원이 되다

언제부터인가 4학년이 되면 해외 인턴십을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다. 평소 기획 업무에 관심이 많아 해외기업들은 어떻게 기획을 진행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현지에서 영어실력을 키우고 싶은 마음도 컸다. 그러다 우연히 국제교류 프로그램 설명회를 들게 되었고, 그때 말레이시아 인턴십 프로그램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프로세스도 매우 체계적이고, 인턴십 후기도 많아 믿음이 갔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이 프로그램을 선택했고, 학교 면접과 베자야 그룹 담당자와의 면접을 거쳐 드디어 말레이시아로 떠나게 되었다.

인턴십 시작 전에 2주간 사전교육을 먼저 받게 되는데, 이 기간엔 주로 말레이시아 문화와 기업예절, 면접 준비 등 말 그대로 실제 업무에 투입되기 전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 배우게 된다. 보통은 말레이시아에 오기 전에 베자야 그룹 내 다양한 계열사들 중 일하고 싶은 세 곳을 정해 이력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나는 올해부터 3, 4학년에 한해 대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 인턴십'을 통해 말레이시아 내 자산 규모 1위 기업인 Maybank에서 일할 수 있었다. 기획 업무를 원했던 나는 인사부에서 매년 진행하는 'Maybank Go Ahead

Challenge(MGAC)' 프로젝트 팀으로 발령받았다. MGAC 프로젝트는 Maybank가 있는 전 세계 14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미션을 수행하며 경쟁하는, 일종의 '런닝맨+공모전 경쟁PT' 같은 프로그램이다. 덕분에 은행 근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활동적인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내가 팀에 배정되었을 땐 이미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은 거의 끝난 상태였고, 홍보 단계에 접어들어 홍보용 노트 커버와 티셔츠 등의 디자인, 팀원들과 함께 말레이시아 내 대학교에 방문해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업무를 맡아 진행했다. MGAC 프로젝트의 첫 단계인 Campus level 때엔 참가자들에게 주어진 이메일 과제 및 참가자 정보 확인 전화 업무와 Campus level 영상을 비롯한 기타 홍보영상들을 편집하는 일을 맡아서 진행했다. 일 자체도 즐거웠지만 무엇보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Maybank의 정직원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 인턴이라기보다는 팀의 일원으로 함께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 진짜 내가 사회구성원으로서 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



이슬람 문화와 익숙해지기, 그만큼 깊어진 교감과 그리움

사실 인턴십을 오기 전까진 말레이시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인 것도 몰랐고, 두 개의 반도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그래서 처음 이슬람 국가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조금 겁이 났지만 막상 와보니 별다른 차이를 느낄 수 없었다. 무슬림은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 도축했다는 표시의 '할랄(Halal)' 마크가 붙어있는 제품만 먹는데, 말레이시아 내에서는 거의 모든 식당과 제품에 할랄 마크가 붙어 있어 같이 음식을 먹을 때도 불편함이 없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접하기 힘든 종교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었다. 이슬람에는 보통 6월에서 7월 초부터 시작해 한 달간 해가 떠있는 시간에는 금식을 하는 라마단 기간이 있는데, 이때는 물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옆에서 지나치게 음식을 먹거나 하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고, 대부분의 식당들이 낮에는 문을 열지 않아 식료품 등은 미리 구비해두어야 한다.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들은 점심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점심시간까지 일하는 대신 그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고, 하루 최대 다섯 번은 기도를 하기 때문에 회사 내에도 모스크(Mosque)가 있어 무슬림 직원들은 매일 4시경이 되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그곳에 가서 기도를 올린다.

이렇게 말레이시아에 있으면서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中最 기억에 남는 건 같은 팀 인턴의 마지막 근무 날이다. 다들 그 친구를 위해 무언가 준비하는 것 같아 나도 동참했고, 퇴근시간 무렵 케이크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친구를 놀라게 해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팀원들이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며 사무실로 들어오는 거였다. 다음 아닌 나의 깜짝 생일파티였다. 생일이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모두가 나를 축하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동받았다. 그때 친해진 말레이시아 친구들과는 한국의 친구들만큼이나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 아직까지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사실 말레이시아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친구들과 한국인 친구만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젠 그것이 가능한 일이란 걸 알게 됐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 나는 방송국 PD라는 막연했던 내 꿈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반면, 나름대로 많은 경험을 해왔다고 자부했는데, 이번 말레이시아 인턴십을 통해 지식과 경험 면에서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내 꿈을 이룰 생각이다. ①